



진안종합복지관, 장애인 풋살단 '블루로즈FC' 창단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소양, 이하 복지관)은 지난 12일 지역 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된 풋살단 '블루로즈 FC' 창단식을 가졌다.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통한 체력 증진과 더불어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통합을 이어나가기 위해 풋살단을 창단했다. 블루로즈FC는 진안장애인체육회 소속 임주광 감독 지도 하에 주1회 운영되며 정기적인 훈련과 함께 친선게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참가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진안군장애인체육회 임주광 팀장은 "매 회가 즐거워서 계속 참여하고 싶은 풋살단으로 지도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경험과 기량을 십분 발휘할 것이고, 한걸음씩 발전하는 스포츠단으로 이끌어 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정소양 관장은 "블루로즈 FC창단이 지역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063-432-8871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노인복지관, 장수로타리클럽 후원 짜장면 나눔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 장수로타리클럽(회장 이성길)의 후원으로 15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짜장면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짜장면 나눔 행사는 장수로타리클럽 회장을 포함하여 총 30명 회원들이 재능기부 및 배식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250인분의 짜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따뜻한 나눔 활동이 진행되었다. 장수로타리클럽 이성길 회장은 "로타리클럽은 매년 지역 사회 환경보호운동, 소회계층 물품전달,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사회봉사단체로 앞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회원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정호영 관장은 "매년 지역사회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짜장면 나눔 활동을 하시는 장수로타리클럽 회장 및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장수로타리클럽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올 한해 훈훈한 마음들이 지역에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임실 지사면, '찾아가는 마실영화관' 운영

임실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진수, 최준호)와 여성공부방(황지용 선생)가 문화봉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마실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성공부방에서는 농한기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차원에서 무엇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농사일과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필수 평생 영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의견에 방점을 두고 시작한 것이 찾아가는 마실영화관이다. 마을경로당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트 빔으로 관람하는 영화이지만 대도시의 멀티플렉스 못지않은 화면과 영화관에서 빠질 수 없는 팝콘과 간식으로 즐기는 영화관람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합박꽃이 피게 했다. 지난 12일 금평마을 경로당에서 영화관람을 마치고 나오신 김진옥 어르신은 "코로나 시기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되찾아 주고 평생 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노인들을 위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보탬"

박진배 총장, CBMC 전주지회 명예 회원 위촉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이 'CBMC 전주지회'의 명예 회원으로 위촉됐다. 15일 전주대에 따르면 기독교실업인회(이하 CBMC) 전주지회는 지난 12일 라한호텔에서 제36대 오정식 회장, 제37대 김봉룡 회장 이취임식과 동시에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을 명예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CBS 김용만 대표를 비롯해 120여 명의 CBMC 전주지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CBMC 전주지회는 박진배 총장을 명예 회원으로 위촉하면서 전주대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CBMC 전주지회는 박진배 총장이 명예 회원으로 위촉됨으로써 앞으로 전주대와 CBMC가 협력해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발전된 전주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을 차세대 리더로 세워나가게 된다. 박진배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장학금까지 전달해 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CBMC 전주지회 명예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CBMC는 크리스천 실업인(사업가)과 전문인들이 모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 '기독교실업인회'로 전세계 96개국에 조직돼 있으며, 한국 CBMC는 국내 290여 개 지회, 해외 130여 개 지회와 7천5백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축산물꾸러미 전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축산물꾸러미 100상자(300만원 상당)를 순창군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축산물 꾸러미는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떡갈비, 돈가스, 햄 등 6개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순창군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되었다. 이병희 지부장은 "농협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이웃에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 5대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완주군 관광두레 황미선PD, '최우수 PD' 선정

완주군 관광두레 황미선PD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관광두레 PD 평가에서 '최우수 PD'에 선정됐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3년 관광두레 PD 평가는 지난해 동안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과 창업, 경영개선 지원 등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도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공동체성(주민사업체 및 지자체 활동 공유 노력), 지역성(지역 이해관계자별 협력 성과), 지속가능성(수익 창출 및 고객확보 지원 노력) 3개 분야로 평가가 진행됐다.군은 지난 2022년에 관광두레 공모에 최초 선정돼 2년 동안 황미선 PD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에 힘입어 6개 주민사업체가 발굴, 지역 관광시장에서 왕성한 활동가들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사업체는 △반죽(힐링치유프로그램) △공동체공간 수작(전통주 생산 및 체험) △달달구디(지역 시그니처 베이커리 생산) △만들협동조합(친환경제품 제작 및 체험) △반죽(힐링치유프로그램) △삼산도자기(전통주생



산 및 체험) △복합문화공간 서리울(라사이클링 창작 체험)으로 총 6개소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민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완주온달'을 조직해 '여름'과 '재생' 관광상품을 기획, 국내 최대 취미여행 플랫폼 '프립'과 협업, 상품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선진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황미선 PD는 "주민사업체들과 행정의 협업을 통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염태복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 쾌척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최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오세준 조합장은 "산림조합에 보내주시는 군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대해 보답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여현 부안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항상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동참해 주시는 부안군산림조합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기전대 해외봉사단, 베트남 잘라이성 교육 봉사 파견

전주기전대학 제1기 해외봉사단 13명이 지난 8일 베트남 잘라이성(Ga Lai)으로 교육 봉사 파견을 떠났다. 15일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이번 해외 봉사는 지난해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잘라이성에 위치한 유치원 4곳, 잘라이성 전문사범대학 1곳에서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해외봉사단은 유아교육과, 음구조과, 치위생과의 12명 학생과 1명의 교수로 구성됐다. 본교 해외봉사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2주간 오리엔테이션, 국내 교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실습한 후 현지에 파견, 교육봉사(유아미술, 유아 구강교육, 유아놀이교육 및 위생교육, 태권도)를 통한 '실천형 봉사인'과 '국제 생활형 직업인'의 인재상에 맞는 역량을 수행했다. 전주기전대학 김가현 KOICA&국제교류원장은 "베트남 잘라이성의 약 50%가 소수민족이다. 소수민족은 상대적으로



가난해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베트남어를 몰라 학습 지연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청 안정무 안계현 국장,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진안군청 안정무 행정복지국장과 안계현 안천환경국장이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정무 행정복지국장과 안계현 안천환경국장은 평소 진안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왔고 지난 8일 진안군청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복지국장과 안천환경국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안정무 국장과 안계현 국장은 "서기관에 명예로운 출발을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면서 시작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간부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장학금 기탁이 동료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런 고마운 마음이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읍, 2024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부안군 부안읍행정복지센터는 15일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60명 대상으로 발대식 및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안내 및 협약서 작성과 팀배치, 작업시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올해 부안읍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16개조 총 160명의 어르신들이 11월까지 지역환경 개선봉사에 힘쓰게 된다. 김창초 부안읍장은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즐겁게 일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이백행복지센터 등, 외식 이용권 지원 협약

남원시 이백행복지센터(명장 안동준)는 관내 민간협력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1월 15일 그린테이블(대표 이백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은 이백행 관내 저소득 다자녀 가정을 위한 매월 1가구 10만원 상당 외식이용권지원하는 '행복전달 희망쿠폰' 사업으로, 가족 간의 행복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백진 대표는 "평소 후원에 관심이 많았는데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준 명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소득 가족을 위해 많은 서비스를 발굴 제공을 우선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알 림

제전 부안군향우회 창립총회

▲일시: 1월 20일(토), 오후 5시
 ▲장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알펜시아 웨딩컨벤션

본사 내방

▲서거석 전북도교육감